

마포시설공단, 구민과 함께 주요 시설 안전 점검

2025-11-25 오후 4:08:48

마포타임즈 ✉ mapodesk@hanmail.net



주인이 공단 직원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다.(출처=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은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구민 시설안전 모니터링 단’과 함께 마포중앙도서관 등 총 12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및 환경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제 시설 이용자인 구민 12명과 공단 전문 인력 12명이 2인 1조로 참여해 안전 위험요소 및 환경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동선상의 불편 사항, 소화기·경보기 등 안전장비 점검, 청결 상태 등을 상세히 살폈으며,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일용 이사장은 “시설의 주인인 구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공단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환경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마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11-25 16:08 송고

<http://www.mapotimes.co.kr/news.aspx/401906>